집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홈 루덴스족

집 밖은 위험하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더욱 집안에만 머물게 된다. 가벼운 주머니 탓에. 북적이는 공간이 싫어서와 같은 이유로 외출보다는 집안에서 모든 놀이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단순히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한 단계 더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꾸미기도 한다. 이른바 '홈 루덴스족'의 이야기다.



♣ 집과 사랑에 빠지다

집안에서 모든 놀이와 휴식을 해결하는 사람을 두고 '홈 루덴스족'이라고 부른다. 집(Home)과 '놀이하는 인간'인 호모 루덴스(homo Ludens)를 합친 말이다. 말 그대로 '집 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밖에서 노 는 것보다 집안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 다. 홈 루덴스족이 과거의 '집돌이 · 집순이'와 다른 점이라

면 '집안에서 부지런하다'는 점일 것이다.

홈 루덴스족은 이불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으로 친구 들을 초대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마음의 휴식을 위해 기꺼이 집안에 공간을 만들고 치우고 꾸민다. 이런 주거 트렌드는 최근 떠오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나 '케렌시아'(Querencia, 애정, 애착, 귀소본능, 안식처 등을 뜻하는 스페인어)와도 이어진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30년 전 에세이에서 썼던 '소확행'이라는 말이 다시금 회 자되는 이유는 현 세대가 치열하게 사는 것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일 것이다. 때문에 '살면서 발견하는 아주 평범하지 만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행복'을 찾는 일이 말 그대로 확 실한 만족이고, 그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레 홈 루덴스라는 경향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쉴 곳

과거에도 홈 루덴스와 비슷한 단어들은 있었다. 예컨대 2018년 트렌드 키워드로 꼽힌 '케렌시아'나 '코쿤족', '맨 케 이브' 등을 꼽을 수 있다.

케렌시아는 애정, 애착, 귀소본능, 안식처 등을 뜻하는 스 페인어다. 투우 경기에서 소와 사람이 각각 쉬는 공간을 말하지만 정해져 있는 곳은 아니다. 소가 싸우다 도망쳐 쉬는 곳이 바로 케렌시아인데. 이때 투우사는 소를 공격하 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따온 현대인의 케렌시아가 바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며, 홈 루덴스족에게는 집이 바로 그 곳이다. 홈 루덴스족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이 집이기 때 문에 집안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만든다. 좋아하는 물건만 남기고 다 치우거나 비싸더라도 애착이 가는 가구를 구매 하기도 한다.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게 맞 취간다는 점이 인테리어와는 다른 점이다.

홈 루덴스 족 이전에는 코쿤(Coccon) 족이 있었다. 외부 세상에서 도피해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 머물려는 사람 을 뜻한다. 집이나 차, 사이버 공간 등 자신만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게 특징이다. 이들은 밖에 나가 지 않는 대신 자시만의 공간에서 안락함을 추구한다.

이보다 먼저 등장한 신조어는 맨 케이브(Man cave)다. 주 택의 지하나 작업장, 창고처럼 남성이 혼자서 공구를 사용 하고 작업하는 공간을 말한다. 존 그레이가 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에서 "남자는 생각할 게 있으면 동굴로 들어간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당시에는 남성이

자신의 공간을 갖는 것에 의의를 두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고 가꾸는데 시간 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 홈 루덴스들이 바꾸는 소비 트렌드

생활부터 취미까지,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하는 만큼 홈 루 덴스의 주관은 뚜렷하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쉼과 안정에 초점을 둔다. 이른바 프리미엄 가구라고 불리는 1인용 소 파나 고급 침구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구매한다. 뿐만 아니 라 집안에서 더 좋은 음질과 화질로 영화나 드라마 감상을 하려고 대형 TV나 스피커 바와 같은 제품을 시들이기도 하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에어 프라이어도 이 런 분위기에 잘 올라탄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가정간편식 (Home Meal Replacement, HMR)도 시중의 유명 음식점 과 제휴를 맺고 관련 제품을 내놓으며 홈 루덴스족을 공략 하고 있다.

2019년에도 홈 루덴스 바람은 계속해서 불 전망이다. 시장 또한 홈 루덴스족을 노린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현대인이 겪는 갈등이나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가 존재하 는 한 홈 루덴스족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